

금융공기관 성과주의 확산에 노조 반발

임종룡 금융위원장, 공동TF 구성 거부한 노조에 일침 금융노조, “정부가 노사교섭에 개입하는 건 관치금융”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거친 개혁’을 행
동에 옮기기 시작했다.
금융권 내 성과주의 확산을 위해 직접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을 압박
하고 나섰다.

임 위원장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금융위
에서 ‘제2차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를 열
고 2016년 예산편성시 별도 배정한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를 성과주의 도입 수준
에 따라 5단계로 차등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성과주의의 핵심인 성과연봉
제를 빨리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금융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반대
의 경우에는 인건비 예산에 제한을 두겠
다는 뜻이다.

금융공공기관에 성과주의 확산 의지를 분
명히 나타낸 임 위원장은 금융노조를 향
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공개 석상에 설 때면 “금융공공기관이 먼
저 나설테니 일반 은행 등 민간 금융권도
자율적인 노사협의를 통해 성과중심 문화
확산에 나서주길 기대한다”던 임 위원장
의 기존 발언과는 수위가 다르다.

임 위원장은 “성과중심 문화 정착에 가
장 중요한 것은 신뢰인 만큼 노사간 소
통과 공감대 형성을 당부했지만 안타깝게
도 노조가 대화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며 “금융노조와 금융협의회가 가급적 빠
른 시일 내에 대화를 시작해 서로의 입장
을 이해하고 결과를 도출해나가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노조가 무대응을 대응책
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의 기대를 저
버리는 무책임한 자세”라며 “노조는 진정
노조원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냉정하고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2016년도 산별 임단협을 앞두고 금융산
업사용자협의회(금융협의회)와 금융노조
간 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자 임 위원장
이 직접 나서 노조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협의회는 최근 임단협 현안 논의를
위한 노사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금
용노조에 제의했으나 거절당했다.

현재는 사측 회원사료만 구성된 자체 TF
가 운영되고 있다.

금융노조는 임 위원장의 발언에 당혹감
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가 노사 교
섭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은 ‘관치금융’
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금융협의회는 이미
지난달 초 회원사 대표들을 모아놓고 올
해 임단협 안건을 모두 확정지었다”며 “결



자신있게

이세돌(가운데) 9단과 에릭 슈미트(오른쪽) 구글 회장, 데니스 허시비스 구글 딥마인드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이세돌 VS 구글 딥마인드 알파고 대국 기자회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으로는 공동 TF를 통해 논의하자고 말하
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정한 가이
드라인만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 위원장은 노조가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그동안 성명서나 집
회 등을 통해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
다”며 “임단협 과정에서는 각자의 입장과
전력에 따라 얼마든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건데 사측의 일방적인 TF 구
성 제안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무
책임하다고 하는 건 그야말로 어불성설”
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
은 전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라 정하는 건

데 정부가 여기에 개입해 성과주의 도입
을 압박하는 것은 부당 노동행위이자 관
치금융”이라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금융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제시한 것도 치
졸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성과주의를 둘러싼 정부와 기업, 노조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금융위까지 나서 노조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 하고 있지만 금융노조는 이달
말 임단협 안건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철
저한 보안 속에 자체 전략 수립에 집중할
방침이다. 노사간 산별 중앙 교섭은 이르
면 내달 초 진행될 예정이다.

/인진수기자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콘텐츠에 투자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법인이 국내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 1년간 3200억원을 투자한다.

총 32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 후 콘텐츠 제작에 2200
억원, 스타트업 지원에 1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인찬 SK브로드밴드 사장은 8일 서울 SK타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펀드는 제작사와 투자사 대상 설명회를 거
쳐 오는 7월부터 운용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합병법인은 3200억원 중 1500억원은 출자하고 1700억원은
투자를 유치해 조달할 계획이다.

합병법인은 이같은 투자를 통해 콘텐츠 다양성을 확보하는
한편 새로운 유통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미디어플랫폼과 콘
텐츠기업간 동반성장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콘텐츠 전편을 VoD 오리지널로 사전 제작해 유
료 플랫폼에서 동시 개봉하기로 했다.

VoD 1st 서비스되는 새로운 콘텐츠 유통 경로와 시즌제 등
새로운 포맷의 콘텐츠도 선보인다.

또 기존 인기 TV프로그램과 최신 영화 위주에서 벗어나
영화 구작 라이브러리, 교육, 다큐멘터리, 키즈·애니메이션,
지역·문화 예술 콘텐츠 등 다양한 콘텐츠를 공급한다.

합병법인은 제작 콘텐츠를 국내 유료 플랫폼과 OTT는 물
론 글로벌 유료 플랫폼에도 공급해 콘텐츠 제작사의 수익
창출과 외부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12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 글로벌 한류 드라마와 사
회·환경·교육·문화 관련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영상 콘
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또 600억원 규모 융복합 콘텐츠 펀드를 통해 1인 창작자
(MCN)와 가상현실(VR) 등 신기술 기반 뉴미디어 콘텐츠 투
자한다.

/인진수기자

세계 최초 미생물사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미생물을 이용해 임플란트나
의약품 등에 사용되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생산하는데 성공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카이스트(KAIST) 이상엽 교수팀이 대장
균에서 의약품 고분자인 ‘폴리락타이드-co-글라이콜레이트
(polylactate-co-glycolate), PLGA)’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
다고 7일 밝혔다.

PLGA는 젯산과 글라이콜산의 결합된 고분자로, 1~6개월
이내 생분해되고 생체 적합성이 높아 약물 전달 시스템이나
임플란트 등 의료용에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PLGA를 구성하는 젯산이 발효 등을 통해 자연상
태에서도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반면, 글라이콜산은 자
연계에는 촉매효소가 없어 석유화학공정을 거쳐 생산해야
했다.

또 정제과정 등에서 독성 금속촉매가 사용돼 친환경적이
지 못한 단점을 갖고 있었다.

이상엽 교수 연구팀은 글라이콜산을 생산할 수 있는 균주
를 개발해 대장균에서 PLGA가 생성되도록 하는데 성공했
다.

연구팀은 자연계에서 생산되지 않는 글라이콜산을 얻기
위해 유전자를 조작, 세포 성장과 젯산 및 글라이콜산의 대
사 흐름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대장균에서 글라이콜산이 만들어지도록 했고
PLGA의 생성을 유도할 수 있었다.

생성된 PLGA는 추가 발효를 통해 배양시킨 뒤 용매로 추
출해 원하는 제품으로 만들 수 있다. 또 다양한 단량체화
결합이 가능해 다른 성질을 갖는 바이오 플라스틱도 만들
수 있다.

연구팀은 이를 응용할 경우 기존의 플라스틱 생산 공정을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생산 공정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진수기자

“한은 통화정책 경제상황 제대로 반영 못해”

LG경제연구원, 낮아지는 성장을 반영안돼... 올해 금리 두어차례 내릴수도

한국은행이 상정하고 있는 실질균형금리
가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
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2016년 두어 차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8일 ‘통화정책, 저성장
추세 반영 필요하다’ 보고서를 통해 2011
년 하반기 이후 저물가 국면에서의 대처
가 다소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화정책은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지는 점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 경우 중앙은행이 상
정하는 실질균형금리도 함께 하락해야 한
다.

한국은행의 통화결정 패턴을 보면 2009
년 전후로 성장둔화에 맞춰 정책금리와
실질균형금리도 낮췄다.

하지만 2011년 이후 국내외 경기둔화에
미온적으로 반응했으며, 실질균형금리 수

준은 2011년 이후 오히려 높아지기도 했
다.

경직적인 금리정책은 한은의 낙관적인
경제전망 때문이다.

국내의 경제상황이 2008년 이전으로 돌
아갈 것이라는 기대는 경기 상황이 악화
되는 와중에도 정책금리 인하를 미루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그 결과 통화정책과
경제상황과의 괴리는 지속됐다.

정성태 책임연구원은 “중앙은행이 제시
한 GDP갭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2012~2014년 중 금리인하에 소극적이었
다”며 “이는 중앙은행이 상정하고 있는 실
질균형금리가 낮아진 성장률이나 물가상
승률을 반영하지 않은(0.7%)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리정책에 대해서 보고서는 2016
년 두어 차례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했다.

이는 전망이 기반이 되는 2015년 물가상

승률(0.7%)과 2016년 예상 물가갭(0.5%p),
2016년 예상 GDP갭(0.1%p)을 기초로 분석
한 결과다.

2005년 한은의 이후 정책금리 결정패턴
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실질균형
금리는 0.81%고 GDP갭과 물가갭 계수가
각각 0.4다.

따라서 2016년 평균정책금리는 1.34%로
도출된다.

2009년 이후 통화정책에 변화가 한 번만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 2016년 평균 정책금
리는 1.08%며, 2014년 이후 금리결정체
계가 변화했다고 가정할 경우 정책금리는
0.93%에 불과하다.

이 세 가정을 모두 따져봐도 현재 기준
금리인 1.5%보다 낮다는 것이다.

정 연구원은 “중앙은행이 금리인하에 적
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감
안하면 동결가능성도 있다”며 “2%성장이
고착화 될 수 있는 우리가 커 통화정책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인진수기자

제2금융권 회사 40곳

여성관리자는 6.2%

외국계를 포함한 국내 제2금융권 회사
40곳의 관리직 가운데 여성 비중은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조사 대상
40개 금융사의 부사장 263명 중 여성은
164명, 임원 670명 가운데서도 여성은 29
명에 그쳤다. 이에 반해 조사가 이뤄진 제
2금융권 회사 40곳의 여성 임직원 비율은
전체 43%에 달한다.

이들은 금융권의 여성 채용 규모가 정규
직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비정규
직 가운데 여성채용 규모는 90%를 넘어서
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또 여성이 정규
직으로 채용됐더라도 분리직군제에 따라
승진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이 남성 대비
2~3배 이상이라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출산과 육아, 경력단절로 어려움
을 겪고 육아 휴직 등에 따른 승진 누락과
저성급자로 전락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도 했다.

/인진수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